

노인의 대인애착 경향과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 추구¹⁾
(Attachment of the elderly peop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interaction)

이주일²⁾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애착은 생애초기에 형성된다. 그러나 타인에 대한 애착이 한번 형성되면, 이는 아동기 이후에도 지속되어 청년기에도 영향을 준다. Hazen과 Shaver(1987)는 성인애착척도를 개발해서 청년기 이후 성인기에도 애착이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애착성향은 청년기뿐만 아니라 노년기의 삶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인 후반기에 들어선 45세 이상 2,529명에 대한 심층적인 개별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Cooper, Shaver, 및 Collins(1998)의 분류 기준에 따라 반응이 일치하는 2,252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안정애착스타일이 1,612명(71.5%), 회피애착스타일이 545명(24.2%), 불안회피 애착 스타일이 95명(4.5%)이었다. 반응자의 평균 연령은 68세였고, 남성이 843명(37.4%), 여성이 1,409명(62.6%)이었다. 애착 유형 간에 정서경험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안정 애착형의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의 노인(회피형과 불안애착형)들보다 긍정적인 정서는 더 많이 체험하였고, 부정적인 정서는 더 적게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감정적인 동요 수준은 불안형 애착, 회피형 애착, 안정형 애착 순으로 높았고, 노화에 대한 만족도와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안정형 애착정보보다 높게 나타났다. 욕구 충족도를 비교해본 결과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기초적 욕구, 배우자에 대한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관계에 대한 욕구, 자존감의 욕구, 활동욕구에서 모두 충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스타일에 따라 사회적인 활동정도의 차이를 분석해본 결과 안정애착형의 노인들이 회피 애착형 노인들보다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안정, 회피, 불안형 노인 순서로 참여하는 활동수가 많았고, 주위사람들에 대한 전화접촉과 직접적인 방문 횟수가 많았다. 주위사람에 대해 지지를 제공하고 지지를 받고자 하는 정도를 비교해 본 결과에서도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더 많은 지지를 제공했고, 더 많은 지지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노인, 노화, 애착,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활동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을 연구하기 위한 종합연구의 일부로 시작되었다. 한국사회의 고령화 진척속도는 세계1위라고 한다. 게다가 한국사회의 출산율은 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아,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사회의 고령화 정도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여겨진다. 피터슨(2002)은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라는 저서에서 21세기에 인류가 부닥칠 가장 심각한 문제를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는 고령화 사회로 인한 문제는 너무나 명확하고, 누구나 알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환경오염이나 식량부족, 핵전쟁 등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한 위험보다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설파하고 있다.

성공적인 노화과정 및 노화의 진행과 삶의 질의 관계를 밝히고자 하는 많은 연구들이 종단적으로 진행되었다(Baltes & Baltes, 1990). 한국에서는 아직 동일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전국적인 차원의 종단적인 연구가 진행된 적이 없는데, 본 연구는 노인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사회적, 사회 제도적 및 건강관련 요인들을 밝히려는 종단적 연구의 일부로 시행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초점은 노인들의 대인애착경향과 이에 따른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 및 사회적 활동과 유대관계 형성간의 관계를 분석하려는 것이었다.

1) 이 연구는 2002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지원(KRF-2002-074-BM1028)으로 수행되었다. 이 연구를 같이 진행한 한림대학교 고령사회연구소의 박준식 교수와 여러 연구진들에게 감사드린다.

2) 교신저자:이주일(춘천시 옥천동 1번지 한림대학교 심리학과, jilee@hallym.ac.kr)

본 연구에서 대인애착경향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Bowlby(1969)에 의해 정리된 애착의 개념이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형성된 것이었고, 본 연구에서 측정한 Hazan과 Shaver(1987)의 애착척도도 주로 청년층(평균연령 36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직 노인들을 대상으로 애착을 측정한 경우는 거의 없고, 유아시절에 형성된 애착모델이 성인기까지 지속되는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이므로 노인들의 대인애착성향이라고 표현하였다. 또한, 애착은 주로 주된 보호자(primary caregiver)를 대상으로 형성되는 것이나, 본 연구에서 측정된 것은 어떤 특정 대상에 대한 애착관계를 측정한 것이라기보다는 대인관계적인 차원에서 주변사람들에 대해 가지는 애착경향을 물어본 것이기에 노인들의 대인애착 경향이라고 명명하였다.

애착이론과 애착 스타일

Bowlby(1969, 1973)는 엄마와 유아간의 유대관계가 어떻게 발달하고 이런 유대관계 형성이 유아의 발달과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의 핵심은 유아는 엄마에게 장기간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유아와 엄마 간에는 아직 충분히 성장하지 못한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행동기제가 발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엄마와 유아간에 안정적인 유대관계가 형성되게 되면, 유아는 이를 토대로 주위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실험적 탐색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안정적인 자신의 세계를 넓혀가게 된다는 것이다. Bowlby(1969)에 따르면, 이런 초기의 육아경험은 하나의 내적 작동모델(working model)로 개인 내면에 자리 잡게 되어, 이후에 다른 사람들과 맺게 되는 관계형성이나 주위 사람에 대한 개인의 정서경험이나 정서표현 및 이에 대한 대처방식을 결정해 주게 된다.

Ainsworth 등(Ainsworth,1973; Ainsworth, Blehar, Walters, & Wall, 1978)은 엄마와 유아간의 애착관계에서 나타나는 개인차를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애착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들은 유아가 엄마와 떨어져 낯선 상황에 홀로 남겨지게 될 때, 유아가 엄마에게 보이는 애착유형에 따라 이런 스트레스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개인차가 있음을 발견했다. 대부분의 유아들은 엄마가 부재 시 어느 정도 위축되고 스트레스를 받긴 하지만 엄마가 돌아오면 곧 진정되고 엄마에게 다시 매달렸다. 이들은 안정적인 애착유형이라고 명명되었다. 이들과 달리 남아있는 유아들은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애착유형을 나타냈다. 한 유형의 불안정한 유아들은 엄마가 유아를 남겨놓고 떠나려고 할 때, 엄마가 떠나지 못하게 울고불고 하며 엄마에게 매달리고, 엄마가 떠나있는 동안에도 이런 행태를 그치지 않는 유형이었다. 이들은 엄마가 돌아온 후에도 엄마가 또 떠날 것을 두려워하며 엄마를 꼭 붙잡고, 이전의 화가 풀리지 않은 상태로 있었다. 이들은 불안-양가 감정적 애착유형이라고 명명되었다. 또 한 유형의 불안정한 유아들은 엄마가 자신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에 대해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고 엄마가 자신들만 남겨 놓는 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대했으며, 엄마가 돌아온 후에도 본체만체했다. 이들은 회피형 애착 유형으로 명명되었다.

이후, Ainsworth 등(1973)의 애착유형은 주로 아동이나 유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적용되었고, 많은 경험적 지지를 받게 되었다. Hazan과 Shaver(1987)는 Ainsworth 등(1973)이 제안한 유아의 애착스타일이 성인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인들의 애착유형을 구분하기 위한 간단한 척도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들의 애착에 따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학생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Shaver & Hazan, 1993;

Rothbard & Shaver, 1994)에서 안정적인 애착유형의 성인들은 자신감이 있었고, 대인관계능력이 좋았으며,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였으며, 이성파트너와도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불안-양가감정형의 성인들은 자신감이 부족했고, 버림받는 것을 두려워했으며, 파트너의 신뢰성에 대해 의심하고 질투심이 강하였으며, 부적절하게 자기노출을 하고, 이성파트너와는 쉽게 사랑에 빠지고 쉽게 헤어지고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회피유형은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형성에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심지어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 하기도 했으며, 이성 파트너와는 장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였고, 자기노출을 불편해하고 상대적으로 억제적이며 대인관계능력 또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를 보고자 하는 연구들을 종합하면, 유아기에 형성되는 애착 유형은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나며, 이때 보여주는 모습이 유아기에 보였던 특성들과 유사하다는 것이다. 또한 안정적인 애착유형에 비해 불안정적인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여러 측면에서 부적응적인 면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그러나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에 대한 연구 이래 최근 들어 애착 유형에 따른 개인차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지만, 이들이 분석한 성인들이 대부분 대학생이나 20대 들에 국한되었지, 노인들의 애착성향에 따른 차이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애착유형과 심리적 안녕감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인식하고 이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하고, 회피적인 애착유형의 사람들은 부정적인 정서를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하므로 이런 정서들을 잘 모르면서 행동하려 할 것이다. 또한 불안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고도로 정서 표현적이기는 하지만 자신의 정서를 잘 조절하지 못할 것이다.

애착 유형에 따른 차이를 분석한 연구들은 대개 위의 가설과 일치하는 증거들을 보여주었다(Cooper, Shaver & Collins, 1998). 불안정한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더 높은 고독감, 수치심, 높은 부적 정서(분노, 불안, 우울 등), 평가에 대한 두려움 등을 가졌고 자존감이나 자기 확신감이 낮았다. 또한 부정적인 정서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졌다(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및 이은정, 2001; Shaver & Clark, 1994).

Cooper, Shaver 및 Collins(1998)는 성인들의 애착유형과 심리적 적응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성인들이 심리사회적인 면에서 가장 적응적이었으며, 불안-양가감정적인 애착유형의 성인들이 적응도가 가장 낮았고, 자기에 대해 부정적인 개념을 갖고 있었고 음주나 흡연 및 약물 복용과 같은 위험행동을 하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불안 애착 유형은 또한 여러 가지 심리적인 질병증상을 나타내는 정도가 가장 높았다. 한편, 회피적인 애착유형의 성인들도 안정형에 비해 심리사회적인 적응정도가 낮고 심리적인 질병증상(불안, 우울 등)을 높게 나타냈지만, 약물복용이나 음주, 흡연과 같은 위험행동을 하는 정도는 안정적인 애착유형과 비슷하였다.

또한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불안정한 애착유형을 나타내는 사람들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욕구충족이 더 잘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다. 물론, 욕구충족이 안정적인 애착형성에 영향을 주고, 안정적인 애착형성이 여러 면에서의 욕구충족이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는 상호적인 과정이 작용하겠지만 안정적인 애착성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다양한 측면에서 욕구 충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욕구충족과 애착형성관

의 관계를 다룬 최근의 한 연구(La Guardia, Ryan, Couchman & Deci, 2000)에 따르면 자율성, 관계성, 유능성에 대한 욕구충족 정도가 안정적인 애착형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구체적인 특정 요소에 대한 욕구 충족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삶에 대해 자기 결정감(self-determinism)을 느끼고자 할 때 갖게 되는 욕구에 대한 충족과 안정적인 애착형성간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일상생활에서 가지게 되는 세부적인 측면에서 욕구 충족과 애착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일차적인 연구물음은 노인들이 보여주는 애착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녕감 및 욕구충족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점이었다. 아동이나 청년기 성인들에 대한 연구들에서 유추해보면 안정형 노인들이 불안정형 노인들보다 긍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을 것이며, 노화과정이나 삶에 대한 만족도도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측면에 대한 욕구충족도가 높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청년기 성인들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1.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다.

연구가설 2. 안정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욕구충족도가 높을 것이다.

애착유형과 사회활동 및 지지적 관계의 추구

애착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믿고 의지해도 되는지에 대해 개인이 주위사람에 대해 갖게 되는 심리적인 태도, 믿음, 정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발달단계에 따라 중요시 여기게 되는 대상이 달라질 것이므로, 성장함에 따라 애착의 대상 또한 달라질 것이고, 이에 부여하는 의미 또한 달라질 것이다.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짓는 요소로 사회관계망을 어떻게 유지하는가 하는 점이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져왔다. 이에 크게 두가지 상반되는 관점이 존재한다. 하나는 노인이 되어서도 젊었을 때와 같이 다양한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를 결정짓는데 중요하다고 보는 활동이론의 입장이다(Cavan, Burgess, Havighurst, & Goldhammer, 1969). 이 입장을 견지하는 쪽에서는 관계의 양적인 특성을 중시한다. 반면,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사회정서적 선택과정(Lang & Carstensen, 2002)의 기반이 되는 이탈이론의 입장에서는 관계의 양적 측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 측면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노화가 진행되면서 소수의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하는 성향이 커지고, 이 소수의 친밀한 관계를 잘 유지하느냐가 성공적인 노화의 핵심열쇠라는 것이다(Cumming, Dean, Newell, & McCaffrey, 1960).

우선 활동이론은 성공적인 노화는 생애 이전 단계부터 유지해온 역할수행과 활동들을 노후가 되어서도 얼마나 계속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역할 수행에서는 상호작용의 빈도뿐만 아니라 상호작용의 질 또한 중요한 것으로 본다(Cavan, Burgess, Havighurst, & Goldhammer, 1969). 이런 이론들은 상호작용을 하는 수준과 노인의 삶에 대한 만족도간에 높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 이론은 노후가 되어서도 개인이 자신의 역할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성공적으로 노화과정에 적응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 자신의 역할이 변화되거나 어떤 변동이 생긴다고 해서, 상호작용을 하는 양이

나 질적수준이 줄어들지 않는다. 따라서 주위 사람들과 안정적인이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과정의 필수적인 요소라는 것이다.

이에 비해 이탈이론은 다른 입장을 취한다(Cumming, Dean, Newell, & McCaffrey, 1960). 여기서 이탈이란 노인 자신이 사회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과 사회가 노인을 떨어뜨리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상호적인 것이다. 이 이론은 성공적인 노화란 사회적인 역할이나 지위로부터 점진적으로 벗어나는 것에 달려있지 역할과 지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취한다. 따라서 이런 이탈과정을 성공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노화과정을 경험하는 사람이라고 본다. 이 결과로 사람들은 자기에 대해 더 집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정서적인 투자는 점점 줄이게 된다. 따라서 상호작용의 수가 줄어들더라도 이탈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삶에 대한 만족감은 떨어지지 않는다고 본다.

어느 입장을 취하든지 간에 주위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과정에 중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는 주위 사람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노화과정과 긴밀한 관련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애착 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사회활동 및 유대관계는 차이가 날 것이라고 보았다. 한 연구(Simpson, Rholes & Nelligan, 1992)에서 보다 안정적인 애착 유형을 보이는 여성은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파트너가 안전과 확신을 주는 사람으로 인식한 반면에 회피적인 애착 유형을 보이는 여성은 자신의 파트너를 멀리하려고 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보면, 걸프전쟁이 일어난 후에 안정적인 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보다 지지 추구적인 방식을 선호한 반면에 불안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정서중심적인 대처 방식을 선호했고, 회피적 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보다 거리를 두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이런 결과는 애착유형과 사회적 활동 및 유대관계 형성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관계형성과 애착형성의 관계를 분석해보기 위해 애착유형에 따라 참여하는 사회적 활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고, 가족, 친구 및 이웃을 접촉하는 빈도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하였다. 안정 애착형을 보이는 노인들은 불안정형 특히 회피 애착형 노인들보다 사회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가족, 친구, 친척 및 이웃 등의 주위사람들과도 안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애착 유형에 따라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지유형에 차이가 있을 것이다. 안전 유형의 사람들은 주위의 친구나 가족들 사람들과 안정된 지지관계를 구축할 것이므로, 자신에게 심리적, 육체적 및 금전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기대하기가 쉬울 것이다.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상의하고 의논하는 것 또는 도움을 기대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길 것이다. 마찬가지로 주위사람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성향이 더 높을 것이다. 이에 비해 불안정 애착형의 노인들은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나 도움을 주는 것에서 모두를 불편해 할 것이다.

가설 3.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다.

가설 4.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지지제공 및 지지추구행동을 더 많이 보여줄 것이다.

연구방법

조사응답자 및 절차

본 연구의 응답자는 심리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및 사회 의학의 4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구성된 학제간 연구를 통해 진행된 ‘한국 노인의 삶의 질에 관한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이었다. 무선 표집 방법에 의해 춘천과 서울 지역에 거주하는 4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응답자를 선정하였다. 조사에 응답한 사람은 45세 이상의 남녀 2,529명이었다. 주요 연구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지만 노화의 진행과정을 알아보기 위한 목적으로 45세를 기준으로 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는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 것이므로, 본 연구에서 측정된 애착 척도에 따라 응답자의 애착 유형이 명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들, 2,225명의 데이터만을 분석하였다.

응답자(n=2,252명)의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가 843명(37.4%), 여자가 1,409명(62.6%)이었다. 응답자가 거주하는 시별로 보면 서울시 거주자가 899명(39.9%), 춘천시 거주자가 1,358명(60.1%)이었다. 응답자가 사는 지역별로 구분하면 도시지역 거주자가 1,346명(59.8%), 농촌지역 거주자가 906명(40.2%)이었다. 연령별 분포를 보면 조사시점 당시 만 나이로 최소 43세부터 최대 102세까지였으며, 평균 연령은 67.8세, 중간치는 69세였다. 노인인구 산정 기준인 65세를 중심으로 10년 단위로 구성비율을 구분해 본 결과, 54세 이하가 255명(11.3%), 55세에서 64세 사이가 365명(16.2%), 65세에서 74세 사이가 1,120명(49.8%), 75세에서 84세 사이가 457명(20.3%), 85세 이상이 51명(2.3%) 이었다.

설문 조사는 설문조사를 직업으로 하는 전문 조사원을 활용하여 개인별 면접을 통해 시행되었다. 조사원들은 보건 복지부를 포함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시행하는 조사과정에 다수 참여한 경험이 있는 약 30명의 전문 조사원들로 이루어졌으며, 2003년 2월에서 5월 간 3개월에 걸쳐 조사대상자에 대한 개별 방문을 통한 일대일 면접을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인터뷰 길이는 대략 2시간 정도였으며, 조사대상자와 조사원들에게는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였다. 본 연구는 종단적 연구의 일부로 시행된 것으로 2년 후에 동일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한번 조사를 한다는 약속을 받고 조사를 한 것으로, 각 개인의 신상명세가 알려진 상황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도구

애착유형. 애착유형은 Hazan과 Shaver(1987, 1990)가 성인들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자기보고식 애착유형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성인의 애착유형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척도가 있으나(Bartholomew & Horowitz, 1991; Collins & Read, 1990; McGowan, Daniels & Byrne, 1998) 타당도가 검증되고 관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으며(Shaver & Clark, 1994),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노인들인 관계로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는 Hazan과 Shaver(1987, 1990)의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한국에서는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및 이은정(2001)이 이 척도를 활용하여 대학생들의 애착유형을 구분해본 적이 있다. 응답자들에게 애착유형에 대한 세 질문을 주고 각 유형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리커트형 5점 척도에 체크하게 하였다. 그 다음 세 유형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이 어떤 유형인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세 가지 애착유형에 대한 기술문은 다음과 같다.

안정애착유형. 나는 비교적 다른 사람과 쉽게 가까워진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편하게 의존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에게 의존하는 것을 편안해 한다. 또,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는다.

회피적 애착유형.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가까워지는 것을 불편해 한다. 다른 사람들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누군가와 너무 가까워지는 것이 불편하다. 배우자나 친구가 내가 느끼는 것보다 더 친밀해지길 원하게 되면 두려워진다.

불안 양가적 애착유형. 나는 종종 배우자(또는 가까운 사람들)가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한다. 또, 배우자(또는 가까운 사람들)가 나를 떠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걱정한다. 나는 주위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만큼 나와 가까워지는 것을 꺼리는 것 같다.

심리적 안녕감. 애착유형에 따라 노인들의 심리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심리적 안녕감을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측정을 하였다. 우선 노인들의 정서형용사를 사용하여 정서상태를 측정했고, 노인들의 주관적 안녕감과 일상 생활에서의 욕구충족 정도를 측정하였다.

정서체험. 노인들이 부정적인 정서와 긍정적인 정서를 경험하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PANAS(Watson, Clark, & Tellegen, 1988)를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참가자들에게 20가지의 정서를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지를 5점 Likert 척도 상에 표현하게 하였다. 20개의 문항들 중 10가지는 긍정적인 정서를, 나머지 10개는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척도의 신뢰도 계수 α 는 긍정적인 정서는 .79, 부정적인 정서는 .88이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PGCMS, Lawton, 1975; Liang & Bollen, 1983)을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나이든 성인들을 대상으로 측정하도록 특별하게 고안된 것으로, 17문항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이 척도는 평정감, 삶에 대한 만족, 노화에 대한 만족의 세 요인을 측정하도록 구성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여기에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Campbell 등(1976)이 사용한 한 문항으로 된 전형적인 삶에 대한만족도 척도(귀하는 인생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을 약간 수정한 문항(현재의 내 인생에 대해 만족한다)을 사용하여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였다. 그 외에 노인들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자신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에게 가장 가까운 타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개의 문항을 추가하여 측정하였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기 위해 추가된 문항은 ‘나는 죽는다는 것이 두렵다’, ‘배우자나 가까운 사람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것이 두렵다’였다. 각 문항들에 대해 자신에게 얼마나 잘 적용되는지 5점 Likert 척도 상에 표현하게 하였다. 본 조사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해본 결과 평온감, 노화에 대한 만족, 인생에 대한 만족, 죽음에 대한 두려움의 네 요인을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각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 α 는 평온감은 .88, 노화에 대한 만족은 .79, 인생에 대한 만족은 .76,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59였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두 문항으로 측정된 탓으로 신뢰도가 낮게 나왔다.

욕구충족. 노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자신들의 욕구가 충족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Maslow(1965)의 욕구 5단계설(신체적 및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소속감과

사랑의 욕구, 자존감에 대한 욕구, 자아실현에 대한 욕구)에 근거하여 각 욕구별로 4문항씩의 욕구사항들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한 결과 6개 요인으로 구분이 되었다. 이들을 마슬로의 욕구단계설에 따라 분류해보면 첫째 요인은 기초욕구로 1)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2)용돈, 3)독자적인 주거공간, 4)자식 또는 손자 손녀로 이루어 졌고, 둘째 요인은 배우자에 대한 욕구로 1)성생활, 2)배우자의 두 문항이었다. 셋째 요인은 안전의 욕구를 나타내는 문항들로 1)노인복지시설(노인정 등), 2)노인 여가시설(운동, 문화 등), 3) 노인우대제도(경로할인 등)의 세 문항이었고, 넷째요인은 친지 관련욕구로 1) 친구(동성이나 이성친구), 2) 친척이나 친목단체의 두 문항이었다. 다섯째 요인은 자존의 욕구로 1) 가족 내에서의 권위, 2) 사회적인 지위(인정), 3) 친구나 친척의 인정, 4)자기 자신의 인정, 5) 삶에 대한 성취감의 5문항이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요인은 활동의 욕구로 1)취미생활(등산, 낚시 등), 2) 사회봉사활동, 3) 새로운 것의 학습의 세 문항이었다. 본 연구에서 각 하위요인에 대한 신뢰도 계수 a 는 각기 기초욕구 충족도는 .53, 배우자에 대한 욕구 충족도는 .25, 안전욕구충족도는 .66, 친지관련 욕구 충족도는 .74, 자존욕구 충족도는 , 활동욕구 충족도는 .71이었다. 배우자에 대한 욕구는 두 문항으로 측정된 관계로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으로 여겨진다.

사회활동. 노인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노인들의 사회활동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우선 노인들의 사회활동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가족 및 친밀한 사람들과의 객관적 접촉빈도를 측정하였다. 접촉빈도는 전화를 통한 간접적 접촉과 직접 방문하거나 외부에서 만나는 대면적 접촉으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전화를 통한 주변 사람들과의 간접적 접촉 정도는 일주일 단위로 구분하여 동거하지 않는 자녀, 형제/자매, 친척/친구/이웃과 전화통화를 몇 번이나 하는지를 전혀없음, 일주일에 한번 미만,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세 번, 하루에 한번, 하루에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주변 사람들과의 접촉 정도는 한 달 단위로 구분하여 동거하지 않는 자녀, 형제/자매, 친척/친구/이웃과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를 전혀없음, 한달에 한번 미만, 한달에 한번, 한달에 두세 번, 일주일에 한번, 일주일에 두 번 이상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각 세 문항에 대한 응답의 일관성을 보기위해 각 세 문항에 대해 신뢰도를 구한 결과 신뢰도 계수 a 는 각기 .31, .29였다. 이 결과는 상대방에 따라 전화나 방문을 통한 대면 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므로, 직접대면 또는 전화 대면 대상별로 나누어 애착유형에 따라 전화나 직접 방문하는 횟수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일반적 사회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사회단체들에 대한 참여 여부와 참여빈도를 질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여가 생활의 장점에 부합할 수 있는 단체들을 선택하여 질문하였다. 즉 일반적으로 시간을 소일하는데 이용되는 TV시청이나 라디오 청취, 낮잠 등의 범주는 배제하고 주로 외부 활동과 관련된 범주들을 선택하였다. 여가 생활을 위한 단체들로 선택된 것으로는 ㉠ 종교모임, ㉡동창회/향우회/중친회, ㉢자원봉사/시민단체, ㉣노인정/노인회관, ㉤이익옹호단체 ㉥여가/문화/스포츠관련단체 등이다. 이들 단체에 대해 참여하고 있는지, 그리고 참여빈도는 어떻게 되는지를 질문하였다. 단체 참여 수는 최소0에서 최대 6까지 응답이 나올 수 있으나, 본 응답자들의 경우 최대 반응은 5였고, 평균 참여 수는 1.19(SD=.94)개 였다. 단체에 참여하는 빈도는 최소 0에서 63회까지 다양했으며 평균 참여회수는 6.61(sd=9.94)회였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 편차가 아주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지추구 및 지지적 관계형성. 노인들이 주위로부터 어떤 지지를 받기를 원하고 어떠한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들이 주위사람들에게 지지받기를 원하는 측면과 지지를 제공하는 측면을 나누어 측정하였다.

주위로부터의 세부적인 지지 추구.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가족과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받는 주관적 지지 정도를 측정하였다. 주관적 지지는 정서적 지지, 육체적 지지, 그리고 경제적 지지 세 측면으로 나누어 조사되었다. 정서적 지지는 고민이 있을 때 배우자, 자녀, 친척/친구/이웃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상담하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육체적 지지는 몸이 아플 때 배우자, 자녀, 친척/친구/이웃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경제적 지지는 금전적 도움이 필요할 때 자녀, 친척/친구/이웃 각각에 대해 어느 정도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와 아주 많이 기대 한다는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 차원에 대해 대상자별 반응의 일관도를 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 α 를 구해본 결과 정서적 지지기대는 .30, 육체적지지 기대는 .01, 경제적지지 기대는 .11이었다. 신뢰도가 낮게 나온 것은 정서적 지지나 육체적 지지, 경제적 지지를 물어본 세 대상은 상호 일관도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배우자나 자식, 그리고 친지들에게 지지를 기대하는 것이 대상에 따라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료를 통합하지 않고, 각 대상별로 나누어 빈도를 분석하였다.

주위에 대한 세부적인 지지의 제공. 그 다음 단순히 지지를 받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노인의 사회관계, 특히 가족과의 관계에서 노인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측정하였다. 즉, 노인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노인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측정하였다. 이를 위해 지지추구와 똑 같이 정서적 차원, 육체적 차원, 그리고 경제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해 가족 및 주변 사람들에게 노인들이 제공하는 지지의 정도를 질문하였다. 정서적 지지는 배우자, 자녀, 친척/친구/이웃이 고민이 있을 때 어느 정도 상담해 주는지에 대해, 육체적 지지는 배우자, 자녀, 친척/친구/이웃의 몸이 아플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경제적 지지는 자녀, 친척/친구/이웃이 금전적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어느 정도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전혀 도와주지 않는다와 아주 잘 도와 준다는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다. 각 차원에 대해 대상자별 반응의 일관도를 보기 위해 신뢰도 계수 α 를 구해본 결과 정서적 지지제공은 .34, 육체적지지 제공은 .42, 경제적지지 제공은 .69였다. 지지제공의 경우도 경제적 지지를 제외하고는 신뢰도가 높다고 볼 수가 없어서 대상별로 빈도분석을 하였다.

기타 측정척도. 구체적으로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한 측정 외에 잘 알려진 척도를 사용하여 이 같은 결과가 반복되는지를 측정하였다. 주위 사람으로부터의 지지제공 및 지지적 제공과 관련된 척도로는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지지정도, 효사상 또는 부모봉양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였다. 이에 덧붙여 종교에 대한 노인들의 의존정도과 애착형성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종교적인 영성추구정도를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Zimet과 그의 동료들(1988)에 의해 개발된 ‘다차원 사회적 지지 척도(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MSPSS)’를 연구진이 약간 수정한 척도로 측정되었다. 사회적지지 척도는, 의지할 친구, 상의할 가족, 회노애락을 나눌 친구, 이해해 주는 사람, 의사결정을 돕는 사람, 상의할 친구에 관한 여섯 개의 질문

으로 이루어져있으며,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로 측정되었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80이었다.

효사상(부모봉양태도). 효사상은 Seelbach(1978)의 '부모봉양에 대한 책임감 (Realization of Filial Responsibility)' 척도의 6개 질문을 통해 조사되었다. 척도는, 부모와 근거리 거주, 부모 돌보기, 경제적 지원, 정기적 방문, 전화 안부, 부모에 대한 책임감에 관한 의견을 1점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했다. 이 척도는 자식이 부모를 모시는 것을 얼마나 기대하는지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75였다.

영성추구. 이 척도는 한내창(2001)이 사용한 척도로 종교적 행위와 종교에 관한 견해를 묻는 8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문항은 1점 '전혀 아니다'에서 5점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측정된다. 이 척도는 일반적인 영성을 물어보는 척도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종교적인 지지를 얼마나 중요시하는가 하는 정도로 해석하였다. 즉, 애착유형에 따라 종교적인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 α 는 .91이었다.

결 과

노인의 애착유형

애착유형의 구분은 두 가지 방식에 의해 이루어졌다. 노인의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Hazen과 Shaver(1987)가 사용한 척도를 이용하여 먼저 자신이 세 가지 애착성향에서 어디에 속하는 지를 5점 척도에 응답하게 한 다음, 3가지 유형 중에서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선택하게 하였다. 세 질문 문항에 대한 리커트 척도 설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점수를 해당 응답자의 애착유형이라고 본 다음, 이 애착유형과 응답자 본인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낸다고 선택한 유형과 비교하여 두 선택이 일치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5점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애착유형과 본인이 선택한 애착 유형이 일치하는 사람이 전체 응답자 2,529명 중 2,252명(89%)이었다. 나머지 응답자는 리커트 척도에서 가장 높은 점수와 본인의 선택이 다른 사람이 92명(3.6%), 자신의 애착유형으로 높은 점수를 동일하게 두개 선택한 사람이 117명(4.6%), 세 가지 유형에 대한 리커트 점수가 동일한 사람이 68명(2.7%)이었다. 리커트 척도에서 가장 높게 평정된 애착유형과 자신이 선택한 애착 유형 간에 차이가 난 사람의 비율이 본 연구에서는 3.6%인데, 이는 Cooper, Shaver 및 Collins(1998)의 조사에서 나온 비일치자의 비율 20%보다 현저히 낮은 비율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리커트 척도에서 두개 이상의 애착유형에 동일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낸 사람은 분석에서 제외하였으므로 조사대상자들의 애착성향의 구분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분석에서는 리커트 척도 상의 최고 점수가 개인이 선택한 애착유형과 동일한 사람 2,252명에 대한 자료만 사용하였다. 이들 중 안정형 애착성향자는 1,612명(71.6%), 회피형 애착성향자는 545명(24.2%), 양가감정 불안형 애착성향자는 95명(4.5%)이었다.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기존의 다른 연구들과 달리 불안형이 적게 나온 것은 자신의 애착 유형으로 리커트 척도에서 두가지이상의 유형에 대해 똑같이 높은 점수를 준 사람들(185명)을 제외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리커트 척도에 대한 응답에서 두 가지 이상

의 유형에 똑같이 높은 점수를 나타낸 사람들이 자신을 가장 잘 나타내는 애착성향이 무엇 인지를 선택한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안정형이 50.3%(92명), 회피형이 38.8%(71명), 불안 형이 10.9%(20명)이었다. 따라서 리커트 척도에서 두 가지 유형 이상에 똑같이 높은 점수 를 보여준 사람이 불안형일 가능성 때문에 이들이 제외되어 불안형이 적게 나타난 것은 아 니다.

본인이 선택한 애착유형별로 리커트 척도에 응답한 애착점수들을 비교해본 결과 본인이 선택한 애착성향에 따라 안정애착정도, 회피애착정도, 불안애착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 타나, 애착성향별로 구분된 세 집단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애착성향을 구분해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후분석결과(Scheffe 검증) 안정형 애착자는 불안애착을 회피애착보다 더 많 이 가지고 있었고, 회피형 애착자는 불안애착을 안정애착보다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불안형 애착자의 안정애착점수와 회피애착 점수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1. 애착유형별로 리커트 척도에서 반응한 애착 정도

	안정애착정도	회피애착정도	불안애착정도	F	p
안정형 애착자	4.09(.66)	2.10(.68)	2.62(.77)	1901.7	.0001
회피형 애착자	1.96(.62)	4.00(.62)	2.62(.81)	2127.3	.0001
불안형 애착자	1.86(.73)	1.99(.80)	4.01(.56)	381.5	.0001

주. 수치는 5점척도상치 평균과 표준편차

본 연구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애착연구의 효시라 할 수 있기에 성별, 연령별, 그리 고 지역별(거주시 및 거주지역별)로 애착 비율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다른 연구 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연령별 및 지역별로는 애착유형에서 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Cooper, Shaver 및 Collins(1998)의 연구에서와 같이 남녀간에 애착성향의 비율에서 차이 가 났다($\chi^2 = 11.95, p < .001$). 남성들 간에는 안정형이 639명(75.8%), 회피형이 172명 (20.4%), 불안형이 32명(3.8%)인데 비해, 여성들에게서는 안정형이 973명(69.1%), 회피형 이 373명(26.5%), 불안형이 63명(4.5%)이었다. 즉,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자신들이 보다 안정적인 애착유형을 나타낸다고 보는 반면에, 여성들은 남성들보다 자신들이 보다 회피적 애착유형을 나타낸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조사 지역이 서울이나 춘천인지에 따라 애착유형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chi^2 = 1.43, p = n.s.$), 거주지역이 농촌지역이나 도 시지역이나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chi^2 = 3.03, p = n.s.$). 관심있게 살펴본, 연령에 따른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chi^2 = 5.88, p = n.s.$).

애착유형과 심리적 안녕감(정서체험, 주관적 안녕감, 욕구충족).

본 연구에서 가장 관심가진 부분 중의 하나는 노인들의 애착 유형에 따라 심리적 안녕 감에 차이가 있는가 하는 것이었다. 기존의 청년들이나 유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안정형 애착자들이 비안정형의 애착자들보다 대체적으로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이고, 비안정형 애착자 중에서는 불안-양가 감정적 애착자가 회피형 애착자들보다 안녕감이 떨 어진다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 참여한 노인들도 기존 연구들과 같은 결과를 나타낼 것이라 는 가정을 하고, 노인들의 정서체험, 주관적 안녕감을 측정하였고,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의 욕구 충족도를 측정하였다.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체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M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MANOVA분석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정서체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Lambda=0.969$, $F(4,4494)=17.78$, $p=0.000$.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를 나누어 따로 분석한 후속 변량분석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정적 정서체험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2,2248)=3.66$, $p=0.026$, 부적 정서체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2248)=29.77$, $p=0.000$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안정형 노인들이 회피형 노인들보다 정적 정서 체험을 약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과 달리 불안형 집단은 안정형이나 회피형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부적 정서체험은 예상과 일치하게 불안형, 회피형, 안정형 순으로 많이 체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MANOVA 분석을 시행하였다. MANOVA분석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주관적 안녕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Lambda=0.962$, $F(8,4484)=11.11$, $p=0.000$. 주관적 안녕감의 세부요소별로 나누어 따로 분석한 후속 변량분석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평정감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2, 2245)=18.78$, $p=0.000$, 노화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F(2, 2245)=9.39$, $p=0.026$,인생만족도에서도 차이가 있었으나, $F(2, 2245)=38.15$, $p=0.000$,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2, 2245)=2.50$, $p=0.083$.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순으로 평정감을 많이 경험하였으며, 노화만족과 인생만족에서는 안정형 집단이 비안정형 집단(회피형, 불안형)보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세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애착유형에 따라 욕구 충족도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M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MANOVA분석 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욕구 충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Lambda=0.955$, $F(12,4478)=8.68$, $p=0.000$. 욕구 충족도의 세부요소별로 나누어 따로 분석한 후속 변량분석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기초 욕구 충족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2, 2244)=4.47$, $p=0.012$,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F(2, 2244)=3.62$, $p=0.027$, 안전 욕구 충족도에서도 차이가 있었고, $F(2, 2244)=6.18$, $p=0.002$, 친지 관계에 대한 만족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F(2, 2244)=25.29$, $p=0.000$, 자존욕구 충족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F(2, 2244)=31.82$, $p=0.000$, 활동욕구 충족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2, 2244)=17.30$, $p=0.000$.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기초욕구 충족도는 안정형 집단이 불안형보다 높았으나, 회피형은 양집단과 차이가 없었다. 배우자 만족도와 안전 욕구 충족도는 안정형과 회피형간에 차이가 났으나 불안형은 양 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친지관계욕구 충족도, 자존욕구 충족도, 활동욕구 충족도는 안정형이 비안정형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으나, 비안정형인 회피형과 불안형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2.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안녕감의 차이

	애착유형			F	p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정서체험				17.78	.000
정적정서	2.56 ^a	2.47 ^b	2.56 ^{ab}	3.66	.030
부적정서	2.09 ^a	2.24 ^b	2.70 ^c	29.77	.000
주관적안녕감				11.11	.000
평정감	3.30 ^a	3.11 ^b	2.86 ^c	18.78	.000
노화만족	2.62 ^a	2.48 ^b	2.22 ^b	9.39	.000
인생만족	3.01 ^a	2.69 ^b	2.56 ^b	38.15	.000
죽음두려움	2.48 ^a	2.40 ^a	2.65 ^a	2.50	.083
욕구충족				8.68	.000
기초욕구	3.42 ^a	3.37 ^{ab}	3.23 ^b	4.47	.012
배우자	3.17 ^a	3.07 ^b	3.16 ^{ab}	3.62	.027
안전욕구	2.92 ^a	2.81 ^b	2.78 ^{ab}	6.18	.002
친지관계	3.45 ^a	3.21 ^b	3.02 ^b	25.29	.000
자존욕구	3.40 ^a	3.19 ^b	3.11 ^b	31.81	.000
활동욕구	2.71 ^a	2.50 ^b	2.52 ^b	17.30	.000

주. ^{a, b, c}: Scheffe검증결과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의미,

노인의 애착유형과 사회활동

개인의 애착유형은 어린 시절에 형성되어 이후 개인이 보여주는 사회활동이나 유대관계에 영향을 주는 내적 작동모델이 된다고 여겨졌다. 따라서 개인이 보여주는 애착 유형에 따라 활동유형은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런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위사람들과의 직접적인 대면접촉의 빈도와 전화를 통한 간접적인 접촉빈도를 상호 비교해 보았다. 또한 얼마나 다양한 단체 활동에 참여하고 이런 단체 활동에 참여하는 빈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애착유형에 따라 전화접촉횟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M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MANOVA분석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전화 접촉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Lambda=.986$, $F_{(6,4494)}=5.21$, $p=.000$. 전화접촉을 하는 상대별로 나누어 따로 분석한 후속 변량분석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동거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전화접촉 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_{(2, 2249)}=3.59$, $p=.028$,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전화접촉 빈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F_{(2, 2249)}=12.24$, $p=.000$, 형제/자매에 대한 전화빈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_{(2, 2249)}=.51$, $p=.600$.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전화 빈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순으로 전화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에 따라 직접방문하는 횟수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M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MANOVA분석 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직접방문 빈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Lambda=.976$, $F_{(6,4494)}=9.04$, $p=.000$. 직접방문을 하는 상대별로 나누어 따로 분석한 후속 변량분석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동거하지 않은 자녀에 대한 직접방문빈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_{(2, 2249)}=5.51$, $p=.004$,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전화접촉 빈도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F_{(2, 2249)}=23.40$, $p=.000$, 형제/자매에 대한 전

화빈도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_{(2, 2249)}=.88, p=.416$.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비동거 자녀에 대한 전화 빈도는 안정형, 회피형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이 두 집단과 불안형간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불안형 집단의 직접 방문횟수가 더 적었다.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직접방문 빈도에서는 전화방문과 마찬가지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순으로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직접 방문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애착유형에 따라 활동하는 단체의 수와 참여빈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을 하였다. 애착 유형에 따라 단체에 참여하는 종류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_{(2, 2247)}=6.71, p=.001$. 또한 애착유형에 따라 단체에 참여하는 빈도수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해본 결과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_{(2, 2247)}=7.17, p=.001$.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단체참여 종류수와 단체 참여 빈도 모두 안정형과 회피형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즉, 안정형이 회피형에 비해 단체 참여 종류도 많았고, 단체 참여 빈도도 많았다. 그러나 불안형은 양집단과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활동의 차이

	애착유형			F	p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전화접촉빈도				5.21	.000
비동거 자녀	3.06 ^a	2.94 ^a	2.68 ^a	3.59	.028
형제 / 자매	1.89 ^a	1.94 ^a	1.89 ^a	.51	.601
친척/친구/이웃	2.98 ^a	2.80 ^b	2.42 ^c	12.24	.000
직접방문빈도				9.04	.000
비동거 자녀	2.86 ^a	2.86 ^a	2.28 ^b	5.51	.004
형제 / 자매	1.88 ^a	1.91 ^a	1.74 ^a	.88	.416
친척/친구/이웃	4.31 ^a	3.94 ^b	3.20 ^c	23.40	.000
단체 참여수	1.25 ^a	1.10 ^b	1.02 ^{a,b}	6.71	.001
단체 참여빈도	7.17 ^a	5.35 ^b	5.80 ^{a,b}	7.17	.001

주. ^{a, b, c} Scheffe검증결과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의미,

노인의 애착유형과 지지적 관계 추구

애착유형이 어린시절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개인에게 작동되는 작동모델이라면 사회활동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지지적 관계 추구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즉, 애착 유형에 따라 주위사람들이 자신을 지지해줄리라고 기대하는 정도가 다를 것이다. 또한 애착유형에 따라 사회적 지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들에게 베푸는 사회적 지지의 정도도 차이가 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애착유형에 따라 주위사람들이 정서적, 육체적 및 경제적 지지를 제공해주기를 기대하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M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MANOVA분석 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주위사람들의 지지를 받기를 기대하는 정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Lambda=.954, F_{(18,4482)}=5.96, p=.000$. 정서적 지지, 육체적 지지, 경제적 지지의 지지내용과 지지를 제공하는 상대에 따라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

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후속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_{(2, 2249)}=5.05$, $p=.000$, 자녀의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F_{(2, 2249)}=18.92$, $p=.000$, 친척/친구/이웃의 정서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F_{(2, 2249)}=14.72$, $p=.000$.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는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F_{(2, 2249)}=2.13$, $p=.120$, 자녀에게 육체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_{(2, 2249)}=9.13$, $p=.001$, 친척/친구/이웃에게 육체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F_{(2, 2249)}=10.49$, $p=.000$.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배우자로부터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_{(2, 2249)}=5.27$, $p=.005$, 자녀에게 육체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_{(2, 2249)}=4.74$, $p=.009$, 친척/친구/이웃으로부터 육체적인 지지를 기대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F_{(2, 2249)}=19.45$, $p=.000$.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기대는 안정형이 회피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형은 두 집단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자식에 대한 정서적인 도움 기대와 친척/친구/이웃에 대한 정서적인 도움 기대에서는 안정형 집단이 비안정형 집단(회피형, 불안형 모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안정형 집단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배우자에 대한 육체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에서는 애착 유형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식에 육체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와 친척/친구/이웃에게 육체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에서는 안정형 집단이 비안정형 집단간(회피형, 불안형 모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안정형 집단간에는 차이가 나지 않았다. 배우자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에서는 안정형이 회피형 간에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불안형은 두 집단에 비해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식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에서는 안정형이 회피형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불안형은 두 집단 모두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친척/친구/이웃에게 도움을 기대하는 정도는 안정형이 비안정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안정형 집단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애착유형에 따라 주위사람들에게 정서적, 육체적 및 경제적 지지를 제공해주는 정도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일원 MANOVA분석을 시행하였다. MANOVA분석 결과는 애착유형에 따라 주위사람들에게 지지를 제공해주는 정도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Wilks의 $\Lambda=.969$, $F_{(18,4476)}=3.99$, $p=.000$. 정서적 차원, 육체적 차원, 경제적 차원과 지지를 받는 상대에 따라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후속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변량분석결과, 정서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배우자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_{(2, 2249)}=4.72$, $p=.009$, 친척/친구/이웃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F_{(2, 2249)}=11.81$, $p=.000$, 자녀에게 정서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F_{(2, 2249)}=2.90$, $p=.55$. 육체적인 측면에서는 배우자에게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_{(2, 2249)}=4.18$, $p=.015$, 자녀에게 육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_{(2, 2249)}=7.33$, $p=.001$, 친척/친구/이웃에게 육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고, $F_{(2, 2249)}=6.43$, $p=.002$.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배우자에게 지지

를 제공하는 정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고, $F_{(2, 2249)}=11.27, p=.000$, 자녀에게 육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F_{(2, 2249)}=12.23, p=.000$, 친척/친구/이웃에게 육체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정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F_{(2, 2249)}=14.48, p=.000$.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Sheffe검증을 사용하여 사후분석을 한 결과, 배우자에 대한 정서적인 지지 제공은 안정형이 불안형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형은 두 집단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자식에 대한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에서는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친척/친구/이웃에 대해 정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는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에서는 상대가 배우자, 자식, 친척/친구/이웃에 상관없이 안정형이 불안형보다 유의하게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회피형 집단은 두 집단 모두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주위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는 배우자, 자식, 친척/친구/이웃에 상관없이 안정형 집단이 비안정형 집단보다 더 많은 도움을 제공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안형과 회피형 두 집단간에는 주위사람들에게 금전적 도움을 제공하는 정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4. 애착유형에 따른 지지추구의 차이

	애착유형			F	p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지지 기대				5.96	.000
정서적 지지기대					
배우자	2.16 ^a	1.88 ^b	1.86 ^{a,b}	5.05	.006
자녀	3.28 ^a	2.93 ^b	2.88 ^b	18.92	.000
친척/친구/이웃	2.66 ^a	2.43 ^b	2.15 ^b	14.72	.000
육체적 지지기대					
배우자	2.33 ^a	2.17 ^a	1.99 ^a	2.22	.120
자녀	3.53 ^a	3.31 ^b	3.20 ^b	9.13	.000
친척/친구/이웃	2.19 ^a	2.03 ^b	1.80 ^b	10.49	.000
경제적 지지기대					
배우자	1.54 ^a	1.46 ^a	1.00 ^b	5.27	.005
자녀	2.95 ^a	2.78 ^b	2.68 ^{ab}	4.74	.009
친척/친구/이웃	1.70 ^a	1.49 ^b	1.43 ^b	19.45	.000
지지 제공				3.99	.000
정서적 지지제공					
배우자	2.38 ^a	2.18 ^{ab}	1.82 ^b	4.72	.009
자녀	3.77 ^a	3.65 ^a	3.66 ^a	2.90	.055
친척/친구/이웃	3.32 ^a	3.19 ^b	2.84 ^c	11.81	.000
육체적 지지제공					
배우자	2.47 ^a	2.28 ^{ab}	1.93 ^b	4.18	.015
자녀	3.35 ^a	3.20 ^{ab}	2.89 ^b	7.33	.001
친척/친구/이웃	2.65 ^a	2.54 ^{ab}	2.27 ^b	6.43	.001
경제적 지지제공					
배우자	1.61 ^a	1.31 ^b	1.07 ^b	11.27	.000
자녀	2.29 ^a	2.06 ^b	1.74 ^b	12.23	.000
친척/친구/이웃	1.78 ^a	1.58 ^b	1.44 ^b	14.48	.000

주. a, b, c: Scheffe검증결과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의미

논 의

애착은 개인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대상에 대해 가지게 되는 심리적 의존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이 성장하면서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대상이 변하게 마련이지만 애착의 의미는 남아있게 된다. 아동기에 개인의 주 애착 대상은 어머니나 아버지가 될 것이고, 성인기가 되면 부모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친구로 중요한 애착대상이 확장될 것이다.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부모와 떨어져 살게 되거나 부모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자식이나 친구에 대한 애착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따라서 노인에 접어들게 되면 중요한 애착대상은 배우자, 자식 또는 가까운 친구로 바뀌게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중요한 주제는 노인들의 애착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노인들의 애착성향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노인들이 가까운 주위사람들에게 형성하는 애착유형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노인들이 보여주는 애착유형이 아동기나 청년기에 보여지는 애착유형과 차이가 생기는지를 분석해보았다. 그 다음 애착형성이 성공적인 노화와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착유형과 노인들의 사회적 활동 및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지지적 관계의 추구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성인애착과 노인의 애착. 본 연구에서 분석한 노인들 중 안정형 애착성향자는 1,612명(71.6%), 회피형 애착성향자는 545명(24.2%), 불안형 애착성향자는 95명(4.5%)이었다. 미국의 표본을 이용한 연구에서 유아들의 연구를 종합해본 연구(Campos, Barrett, Lamb, Goldsmith, & Sternberg)에서 나타난 애착성향자의 비율은 62%가 안정형, 23%가 회피형, 15%가 불안형이었다. 성인들을 대상으로 애착을 연구한 Hazan과 Shaver(1987)의 연구에서는 안정형이 56%, 회피형이 25%, 불안형이 19%였다. 임의 표본을 사용해서 이루어진 이전 연구들과 달리 대표적인 모집단을 활용한 Cooper, Shaver 및 Collins(1998)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연구에서는 안정형이 56, 회피형이 21%, 불안형이 23%였다. 대표적인 모집단을 활용한 Mickelson등(1997)의 연구에서도 안정형이 59%, 회피형이 20%, 불안형이 17%였다. 이들 결과와 비교해보면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는 회피형은 비슷한 수치를 보인 반면에 안정형은 늘었고, 불안형은 대폭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한국의 대학생 365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김선희 등, 2001)에서 안정형은 208명(57%), 회피형은 116명(32%), 불안-양가형은 41명(11%)이었다. 이 결과와 비교해보아도 안정형은 대폭 증가하였고, 회피형과 불안형은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의 연구 결과들도 노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동이나 청년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란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인이 되면서 안정애착성향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물론 이 결과가 단순히 노화의 진행으로 인해 생긴 결과인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이다. 어쨌든 본 연구에 나타난 노인들의 경우 안정애착형의 비율이 타 연구에 비해 월등히 많고, 이에 비해 불안 애착형의 비율이 현저히 적다는 것은 주목해 볼만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주목할 만한 사실로 이런 결과가 서울이나 춘천에 거주하는지의 여부나 연령대가 증가함에 따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 결과는 직접인터뷰를 통해 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들이 본인들을 더 안정적인 사람으로 응답한 사례가 있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겠다.

노인의 애착과 심리적 안녕감. 아동이나 청년기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들은 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불안정 애착자들보다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다. 한국의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김선희 등의 연구(2001)에서도 안정 애착성향의 대학생들이 애착 대상에 대한 신뢰, 친밀도 평정이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높았다. 본 연구에서도 안정 애착형 노인들은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 한 연구가설 1은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을 것이라였고, 연구가설 2는 안정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욕구충족도가 높을 것이라였다.

연구결과 대개의 경우 가설과 일치되게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높았고, 욕구충족도 또한 높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정서적 체험, 주관적 안녕감 및 욕구 충족도에서 모두 일관되게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더 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노년기의 성공적인 삶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하겠다. 유아기에는 부모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고, 청년기에는 부모와 배우자 및 친구들에게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노년기에도 배우자나 자식 또는 가까운 친구들에 대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어떤 요인들이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어떤 요인들이 회피형이나 불안형과 같은 불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았지만 이런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안정애착유형의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유형의 노인들에 비해 외향적이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친화적인 성향을 나타냄으로 인해 이런 결과가 형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불안정형 애착자와 안정형 애착자간에 성격적 요인이나 기질적 요인상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애착유형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를 매개할 수 있는 변인이 어떤 것들인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연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의 애착과 사회적 활동 및 지지적 관계의 추구.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들은 개인이 보여주는 애착유형에 따라 사회적 활동이나 주위사람들과 지지적 관계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 보고자 했던 가설 3은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사회적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할 것이라였고, 가설 4는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지지제공 및 지지추구행동을 더 많이 보여줄 것이라라는 것이었다.

연구결과는 가설과 같이 안정 애착형 노인들의 사회적 참여활동이 불안정 애착형 노인들보다 많았다. 단체에 참여하는 수나 참여빈도에서 안정 애착형 노인들은 회피 애착형 노인들보다 유의미하게 많았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주위의 애착 인물들에 대한 전화접촉빈도와 직접방문 빈도에서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불안정 애착노인들보다 유의미하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애착 유형에 따라 주위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고자 하고 또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지를 비교해본 결과에서도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으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주위의 애착대상으로부터 정서적인 도움, 육체적인 도움, 경제적인 도움을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또한 본인들도 이런 도움을 제공해주는데 자연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도움을 주고받는 것이 자연스러운

결과로 안정애착이 형성되었을 수도 있다. 긴 인생 여정에서 이 둘이 서로 상호작용을 하며 형성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어느 것이 먼저이든지 상관없이 안정 애착형성과 주위사람들에게 정서적, 육체적, 경제적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애착유형과 지지적 관계의 추구간의 관계를 좀더 살펴보기 위해 자녀들의 효사상에 대한 기대,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 종교적 지지를 추구하는 정도에서 애착유형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추후분석 해보았다. 분석 결과 구체적 인물들에게 지지적 관계를 추구했던 것과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회피 애착형 노인들보다 자녀들이 효도해주고 보살펴주기를 더 많이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고,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순으로 주위사람들로부터의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다 추상적인 지지추구라 할 수 있는 종교적 지지추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들은 모두 안정 애착형 노인들이 주위사람들과 도움을 주고받는 것을 편안해 하며, 실제로 그런 행동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주위사람들과 도움을 주고 받는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이 회피형 애착이나 불안형 애착관계를 형성하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시간적 선후관계는 개인의 인생역사에 따라 각기 다를 것이다. 그리고 노인들의 경우엔 어느 것이 먼저인가가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긴 인생동안 시간적 선후관계는 여러 번 바뀔 수 있고, 대상에 따라 상호영향관계가 다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애착형성과 주위사람들과의 지지적 관계형성이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이다.

표5. 애착유형에 따른 지지추구정도의 차이(척도를 통한 분석)

	애착유형			F	p
	안정형	회피형	불안형		
자녀지지 추구(효사상)	3.76 ^a	3.65 ^b	3.72 ^{a,b}	5.63	.004
사회적지지 추구	3.32 ^a	3.08 ^b	2.85 ^c	34.80	.000
종교적지지 추구	2.66 ^a	2.56 ^a	2.47 ^a	3.044	.048

주. ^{a, b, c}: Scheffe검증결과 .05수준에서 집단간 차이가 나지 않고 같은 집단에 속함을 의미

본연구의 특징. 본 연구에서는 노인들(주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애착유형의 차이를 보고 이런 애착 유형의 차이에 따라 정서경험이나 주관적 안녕감 및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같은 심리적 삶의 질에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 노인들의 사회활동 및 유대관계형성에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영역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였고, 종단적인 연구의 일환으로 연구가 시행되었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가 가지는 의의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가 다른 연구들과 가지는 주된 차이점을 제시하면 첫째, 본 연구의 주요 연구대상이 노인들이라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45세 이상의 성인들만을 연구하였고, 주된 연구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인들이었다. 연령층이 다양함으로 인해 노화의 진행과정에 따라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를 분석할 수가 있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대표적인 모집단을 중심으로 표본추출을 하였다. 기존의 연구들이 대학생들과 같이 임의적인 표본을 사용하여 이루어진 연구가 많은 반면에, 본 연구에서는 서울과 춘천지역을 모집단으로 하여 모집단에 근거해서 표본추출을 하였다. 따라서 현 시점에서 한국노인의 대표적인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본 연구는 다양한 영역의 조사를 하였다. 심리적인 변인뿐 만아니라 다양한 신체건강지표, 사회복지지

표, 사회학적인 지표를 포함하여 포괄적인 조사를 하였다. 노화라는 것은 어느 한 영역의 문제만이 아니며, 삶의 질이란 것도 어느 한 영역으로만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네 번째, 본 연구는 집단적인 조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인터뷰를 통해 데이터를 확보하였다는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설문조사이지만 각 개인의 데이터가 훨씬 신뢰성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개별적인 인터뷰인 관계로 응답자들이 자신을 긍정적인 모습으로 기술하려고 한 측면이 나타나는 문제점도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추후 연구사항. 앞서서도 언급하였다시피, 안정애착 형성은 심리적 안녕감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또한 가까이 있는 주위사람들과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면 안정 애착을 형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요인들이 안정애착 형성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가?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개인의 성격이나 의지와 같은 심리적인 요인들이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고 가구의 구성이나 자식과의 관계, 경제적 수준, 직업의 유무 등과 같은 사회적 요인들 또한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더 거시적으로 나가서는 사회복지 제도나 정책등도 중요한 영향을 줄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며 미시적인 요인들로는 개인의 건강상태나 유병의 역사 등과 같은 신체적인 요소들 또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소들 중에서 어떤 요소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데 가장 결정적이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일단 본 연구에서의 자료에서도 어떤 심리적 욕구의 충족이 가장 안정애착 형성에 중요한지 그리고 지지적 관계 중에 어떤 요소의 충족이 안정애착에 더 중요한지 등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1차적 목적은 현 한국노인의 특성에 대한 기술적인 (descriptive) 자료들을 모으는 것이므로 노화과정에 대한 심층적이며 이론적인 분석에는 많은 영역을 할애하지 못하였다. 이런 부분들은 추후 연구에서 보다 심도깊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Attachment of the elderly people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interaction

Juil Rie

Department of psychology, Hallym University

Attachment is formed at an early time of our life. But after attachment to others in childhood was formed, it is lasting even after childhood, and affects social life of adult time of us, and will affect even in elderly social life of us. Hazen & Shaver(1987) developed scale for adults attachment measurement. We revised that scale a little to fit to elderly people and we collected data from 2,529 respondents over the 45 years old through deep individual interview. After screening the data according to attachment criteria of Cooper, Shaver & Collins(1998), we analyzed the data of 2,252 respondents. Mean age of respondents was 68 years old, median age was 69 years old, and male were 843(37.4%), female were 1,409(62.6%).

In our elderly data, the secure attachment style were 1,612(71.5%), the avoidant attachment style were 545(24.2%), and the anxious-avoidant attachment style were 95(4.5%). It was unique that in our data, anxious style was very small and secure style was more large in comparison with other research (19%, 56% in Hazan & Shaver(1987)'s research) . In our data, secure elderly felt more much positive emotion than insecure (avoidant and anxious) elderly and felt less negative emotion. Levels of agitation were high in anxious style, avoidant style, secure style order. Satisfaction about aging and life was higher in secure style than in avoidant and anxious style. In level of need satisfaction, secure attachment elderly were higher than insecure attachment elderly in basic need, need about spouse, safety need, need for relations, need for self esteem, and needs for activities. And we analyzed difference of social activity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 Secure elderly were more and frequently participated in social club activity than avoidant elderly. But anxious elderly were not different with two types. In secure, avoidant, anxious style order, frequency of phone contacts with relatives, friends, neighbors were high, and even frequency of visiting relatives, friends, neighbors were same. As final analysis, we analyzed difference of support seeking from others and support providing to others according to attachment style. Secure elderly were higher than insecure elderly in seeking of emotional support, physical support, economical support from spouse, children, and relatives /friends /neighbors. And secure elderly were higher than insecure elderly in providing of emotional support, physical support, economical support to spouse, children, and relatives/friends/neighbors.

Key words: elderly, ageing, attachment, psychological well-being, social interaction

참고문헌.

- 김선희, 오경자, 박중규 및 이은정(2001). 애착유형에 따른 심리적 특성-인지적 변인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임상*, 20(1), 105-119.
- 한내창(2001). 우리문화에서 I / E 및 기타 종교성 척도. *한국사회학*, 35(6), 193-217.
- Ainsworth, M.D.S.(1973). The development of infant-mother attachment. In B.M. Caldwell & H.N. Ricciuti (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3, pp.1-94).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Ainsworth, M.D.S., Blehar, M.C., Wal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A psychological study of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altes, P. B. & Baltes, M. M. (1990).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successful aging: The model of selective optimization with compensation. In P. B. Baltes & M. M. Baltes (Eds.), *Successful Age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holomew, K., & Horowitz, L. M. (1991). Attachment styles among young adults: A test a four-category mode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226-244.
- Bowlby, J. (1969). Disruption of affectional bonds and its effects on behavior. *Canada's Mental Health Supplement*, 59.
- Bowlby, J. (1973). *Attachment and loss. Separation: Anxiety and anger (vol. 2)*. New York: Basic Books.
- Campos, J. J., Barrett, K., Lamb, M. E., Goldsmith, H. H., & Sternberg, C.(1983). Socioemotional development. In M. M. Haith & J. J. Campos(Eds.), *Handbook of child psychology: vol2. Infancy and psychobiology*(pp. 783-915). New York: Wiley.
- Campbell, A., Converse, P. E., & Rodgers, W. L. (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s*.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arstensen, L. L., & Lang, F. R. (1996). *Future Orientation Scale*. Unpublished manuscript, Stanford University.
- Carstensen, L. L., Isaacowitz, D. M. & Charles, S.T. (1999). Taking time seriously: A theory of socioemotional selectivity. *American Psychologist*, 54, 165-181.
- Cavan, R. S., Burgess, E. W., Havighurst, R. J., & Goldhammer, H. (1969). *Personal adjustment in old age*. Chicago: Science Research Associate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644-663.
- Cooper, M. L., Shaver, P. P., & Collins, N. L. (1998) Attachment styles, emotion regulation, and adjustment in adolesc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5), 1380-1397.

- Cumming, E., Dean, L. R., Newell, D. S., & McCaffrey, I. (1960). Disengagement: A tentative theory of aging. *Sociometry*, 23, 23-35.
- Greenberg, M. T. (1982).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Inventory of Adolescent Attachments*. Unpublished manuscript, University of Washington.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 (1983).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511-524.
- Hazan, C., & Shaver, P.R. (1990). Love and work: An attachment-theoretical perspectiv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 270-280.
- La Guardia, J. G., Ryan, R. M., Couchman, C. E. & Deci, E. L. (2000). Within-person variation security of attachment: A self-determinism theory perspective on attachment, need fulfillment, and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 Social Psychology*, 79(3), 367-384.
- Lang, F. R. & Carstensen, L. L. (2002). Time counts: Future time perspective, Goals, and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y and Aging*, 17(1), 125-139.
- Lawton, M. P. (1975). The Philadelphia Center Morale Scale: A Revision. *Journal of Gerontology*, 30, 85-89.
- Liang, J., & Bollen, K. A. (1983). The structure of the Philadelphia Geriatric Center Morale Scale: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Gerontology*, 38, 181-189.
- Maslow, A. H. (1965). *Eupsychian management*. Homewood, IL: Irwin.
- Mickelson, K. D., Kessler, R.C., Shaver, P.R. (1997). Adult attachment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amp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3, 1092-1106.
- Mikulincer, M., Florian, V., & Tolmacez, R. (1990). Attachment style and Fear of personal death: A case study of affect regul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2), 273-280.
- Mikulincer, M., & Nachshon, O. (1991). Attachment styles and patterns of self-disclosu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1, 321-331.
- Mirowsky, J., & Ross, C. E. (1991). Eliminating defense and agreement bias from measures of the sense of control: A 2 x 2 index. *Social Psychological Quarterly*, 54, 127-145.
- Peterson, P. G. (2002).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 (강연회 역) 서울: 에코 리브루.
- Rothbard, J. C., & Shaver, P. R. (1994). Continuity of attachment across the life span. In M. B. Sperling & W. H. Berman (Eds.), *Attachment in adults: Clinical and developmental perspectives* (pp.31-71). New York: Guilford Press.
- Seelbach, W. C. (1978). Correlates of aged parents' filial responsibility expectations and realizations, *The Family Coordinator*, 27(4), 341-351.
- Shaver, P.R., & Clark, C. (1994). The psychodynamics of adult romantic attachment. In J.M. Masling & R.F. Bornstein (Eds.), *Empirical perspectives on object relations theory. Empirical studies of psychoanalytic theories* (Vol. 5, pp. 105-156).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Shaver, P.R., & Hazan, C. (1993). Adult romantic attachment: theory and evidence. In D. Perman & W. Jones (Eds), *Advances in personal relationships (vol.4)*, pp.

- 29-70). London: Jessica Kingsley.
- Simpson, J. A., Rholes, W. S. & Nelligan, J. S. (1992). Support seeking and support giving within couples in an anxiety-provoking situation: the role of attachment sty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2*(3), 434-446.
- Watson, D., Clark, L.A., & Tellegen, A. (198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brief measure of positive and negative affect: The PANAS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1063-1070.
- Zimet, G.D., Dahlem, N.W., Zimet, S.G., & Farley, G.K. (1988).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52*, 30-41.

K C I